

# 方藥合編解說

申 載 鏞 編著

成 輔 社

# 方藥合編解説

申 載 鏞 編著

成 輔 社

■ 著者 論文 및 著書

論文: 胞의 生理에 關한 文獻의 考察

Buerger's diseases 에 對한 東醫學의 文獻 考察

金銀花 煎湯 熟成度에 따른 抑菌效果에 對한 實驗의 研究  
生脈散 薑薑根의 Alloxan 投與 白鼠의 血糖量에 미치는 影響

針治療의 最新療法

糖尿病의 漢方의 考察

著書: 휘파람을 부세요, 네?

가장 신비로운 비밀

醫窓閑話

알기쉬운 漢醫學

糖尿病과 消渴

補兒治經方

前 東國大 韓의과대학 外래교수

대구 韓의과대학 外래교수

現在 해성한의원 원장(585-0774)

方藥合編解說

1988年 9月 15日 印刷

1988年 9月 20日 發行

著者 申 載 鏞

發行者 裴 乘 哲

著作權 所有



發行所 圖書 成 輔 社  
出版

서울 鍾路區 忠信洞 25-56

登錄 1978年 5月 17日

登錄番號 第 1-226號

電話 763-0670

組 版 : 新 光 文 化 社  
印 刷

製 冊 : 二 友 製 冊 社

(著作權·版權一切 著者·成輔社 共同所有)

無斷複寫·複製(複寫機에 依한 複寫)를 嚴禁함.

※ 破本은 交換하여 드립니다.

定價 36,000원

₩ 36000



題字：常山 申載錫 筆(著者：申載鏞 先生 親兄)





韓醫學博士 崔光守 畫伯作

## 推 薦 辭

「方藥合編」은 우리 나라의 代表的 綜合醫典인 「東醫寶鑑」을 母胎로 한 簡要醫書로서 舊韓末과 日帝統治時에도 民衆속에 뿌리 깊게 이를 傳承시켜 오늘의 中興期를 맞이할 수 있게 한 알기 쉬운 韓方治療醫學의 길잡이가 되어 왔다는 것은 周知의 事實이다.

이 冊은 오랜 期間 韓方臨床醫家들의 必須的인 伴侶로서 愛用되었으며, 漢文이 通用되던 時期에는 民間에도 꽤 널리 普及되어 우리 겨레에게는 매우 親熟한 家庭醫書이기도 하였다.

그 內容의 簡要性和 實用性 때문에, 지금도 韓方診療에 關與하는 많은 人士들의 書架에서 頻度 높은 參考書로 愛用되고 있다.

光復後 原本 그대로의 複製版本도 많이 나왔고, 各樣各色的 譯本과 注釋本이 나왔지만, 그 原本은 漢文만으로 되어있어 現代人에게는 難解한 癖이 있고, 譯本과 注釋本은 內容上 未洽한 點이 있어서 臨床指導書로 쓰기에는 어딘지 不足한 아쉬움이 있었다.

그러던 次에 今般 우리 韓醫界에서 新進氣銳의 엘리트로 定評있는 申載鏞 先生이 精力을 기울여 完成한 「方藥合編解說」의 校正刷本을 보고 다시 한번 그의 非凡한 學究的 精熟에 驚歎을 禁할 수 없다.

그동안 著者名義로 「藥業新聞」에 실린 「方藥合編解說」의 斷片的인 內容을 보고, 보기도 문 알찬 解說注釋이라고 關心을 가졌었는데, 막상 이렇듯 大作으로 整理된 冊의 全貌를 보니 內容이 充實하고 正確하며 時代的 要請에 副應하는 良書임을 再確認하게 되어, 著者의 該博한 學識과 緻密한 計劃과 努力에 對하여 아낌없는 讚辭를 보낸다.

原書인 「方藥合編」이 標題 그대로 臨床便覽이 되게끔 方藥爲主로 編纂되었음을 勘案하여, 本書에서는 基礎理論部分인 雜病提綱 등 理論分野를 省略하고 處方과 藥物解說에 注力, 오늘날 醫學體系가 基礎醫學(理論)과 臨床醫學(治療)으로 區分되는 데 비추어, 本書는 臨床治療에 큰 比重을 둔 것이 特徵이라 할 수 있다.

특히 本書의 中心部分인 方藥(處方)解說에 있어서 原書의 方名과 處方構成을 鮮明하게 큰 楷書體로 提示한 다음 解說欄에서는 立方用藥의 原理와 方義를 昭詳히 說明하고, 한편 隨症用藥의 加減法을 具體的으로 實例까지 곁들임으로써 初心者들이 犯하기 쉬운 既成處方의 機械的運用이라는 盲點을 打破하여 韓方本來의 原理대로 症狀에 適合한 辨證施治에 이르게 하는 좋은 길잡이가 될 것으로 믿는다. 또한 그 가운데는 初心者들이 理解하기 어려운 學術用語의 解說도 加함으로써 本書를 利用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本書에 수록된 處方은 「醫方活套」의 上·中·下 467方(附方 103), 諸傷門 21方·解毒門 20方, 雜方門 14方, 石隱補遺 19方, 輪症霍亂(惠庵家傳經驗方) 9方·製造門 26方, 增補方 855方과 그밖에 新增補 340方을 싣고 있다. 특히 新增補方은 著者의 엄격한 選

定基準에 의해 精選된 處方으로 國內外 臨床大家들의 經驗方이나, 새로이 創製立方되어 效驗이 확인된 處方, 또한 著者の 愛用方까지 添加하였으며, 또한 各處方에 따르는 수천 개의 加減方을 수록하였으므로, 모든 臨床需要에 能히 充足될 것으로 믿어진다.

隨證用藥의 索引이라 할 수 있는 「活套針線」은 著者가 따로 뜻한 바 있어 本書에서는 省略하는 대신 病名·症候·目標別 索引을 붙이고, 別冊으로 『隨證治療編』을 出刊할 예정이므로, 本書와 雙璧을 이루어 選方活用에는 조금도 不便이 없을 것으로 確信한다.

著者の 勞苦에 深甚한 慰勞와 感謝의 뜻을 表하면서 아무쪼록 本書가 韓方臨床醫家들의 忠實한 伴侶가 되어 韓方治療醫學의 改善과 發展으로 辨證施治의 向上에 크게 寄與하는데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면서 蕪文을 卷頭に 부치는 바이다.

1988年 陰正月 15日

財團法人 東洋醫學研究院 理事長

哲學博士 金定濟識  
韓醫學博士

## 序

『方藥合編』은 醫家의 唯一無二한 寶典으로 黃度淵·黃泌秀 父子의 合作이다.

黃度淵은 純祖 7년(1807)에 태어나 哲宗 때부터 高宗 初까지 서울 무교동에서 醫術을 행하여 名聲을 얻었던 名醫다. 본관이 昌原이요, 호가 惠庵인 黃度淵은 『東醫寶鑑』을 근본삼아 의학을 배우고 의술을 행했는데, 『東醫寶鑑』이 卷帙이 많고 病症 分類에도 重複된 점이 많은 점을 개선하려고, 哲宗 6년에 『東醫寶鑑』을 기본으로 하여 各病症에 따르는 有效한 治療方을 整理하고, 그 치료 처방들에 관한 藥物學的 지식은 清代의 『本草綱線』에 의하여 임상가들이 處方과 藥物學的 지식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附方便覽』 14卷을 著述했다.

그는 또 高宗 5년에 『東醫寶鑑』과 기타 醫書에서 가장 적절한 處方만을 拔萃하고, 여기에 그 자신이 經驗한 秘方과 民間에서 쓰이는 効果있는 俗方들을 붙여 『醫宗損益』 12卷을 編述한 데 이어, 『萬病回春』에 실린 藥性歌를 引用하여 그 아래 藥草의 우리 俗名을 붙여 『醫宗損益附餘』 1卷을 編述하였다. 藥性歌란 藥物의 性質과 效能을 이해하기 쉽고 외우기 쉽게 字句를 맞추어 노래처럼 구민 것이다. 그의 노력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아 『醫宗損益』과 『醫宗損益附餘』를 편성한 다음 해인 高宗 6년에 『醫方活套』 1卷을 編述, 刊行하였다. 『醫方活套』는 臨床에 매우 效果 좋은 處方만을 골라 「上 中 下」 세 단계로 분류하여 편성한 것이다. 이를 三統이라 하는데, 이 중 上統은 人體의 新陳代謝를 促進하고 低下된 生理機能을 보강시키는 補劑의 處方으로 묶여져 있고, 中統은 보강시키지는 못하되 機能의 亢進과 低下를 調和시켜 均衡있는 生理機能을 유지토록 하는 和劑의 處方으로 묶여져 있으며, 下統은 疾病의 狀態가 急進되고 強實하여 성질이 표독하고 효능이 강한 藥物로 疾病을 공격하여 正常的 生理機能을 조속히 찾도록 하는 攻劑의 處方으로 묶여져 있다.

그래서 그는 『醫方活套』 原序에서 이렇게 밝혔다.

“初不可援例分門 次爲三統 以見補和攻之三品 別爲綱線 使學者開卷而該兼治 此雖古人之不傳 亦可爲對投之一例 因是推究 庶其汎應而入門矣”

原序에서 밝힌 바대로 三統 分類法은 古人의 傳法이 아닌 그의 독특한 對症投藥의 例法이다. 따라서 對投의 便易 때문에 이 著書는 실제 臨床家들의 應急的 參考書籍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후 黃度淵이 高宗 21年(1884)에 77歲로 他界하자, 그의 아들 黃泌秀가 이를 繼承하여 『醫方活套』에 『損益本草』 『用藥綱領』 『救急禁忌』 등 10餘種을 加해서 한 권의 醫書로 편집하니, 이것이 곧 『方藥合編』이다.

『方藥合編』은 편찬 이래 지금까지 醫架의 필수서가 되고 있으며, 韓方을 研究하는 사람이나 實務에 중사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할 須知我藥醫訣로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이 좋은 醫家의 臨床寶典이 원래부터 難解한 漢文으로만 되어있고 그나마 漢文 文法으로 略記가 되어 現代인들이 理解하기에 隘路가 많다. 이에 몇몇 出版社에서 譯本을 刊行하여 그 隘路를 개척하고자 노력했으나, 일부 譯本은 原文과 意譯으로만 되어 있고, 或은 簡潔하게 直譯했거나, 또는 漢文과 한글을 二重的으로 읽어야 하는 불편한 점도 있고, 原文도 없이 간단한 直譯만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어서, 때로 그 뜻을 理解하기가 더욱 곤란하기도 하고, 때로 本來의 深奧한 意義를 저버릴 염려까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이번에 原文은 原文대로 그 뜻을 살리고, 그 뜻을 우리 音으로 解認하는 方法을 使用하여 漢



문이 不足한 新進人이라도 二重으로 읽는 繁雜함을 피할 수 있게 했으며, 韓方用語를 가급적 쉽게 풀이함으로써 그 뜻을 충분히 理解하고 活用할 수 있게 試圖하였다.

거기다가 다시 臨床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處方 하나하나에 臨床上 필요한 加減法과 註解, 服用法, 脈狀, 五行으로 가리는 處方選擇法, 꼭 필요한 鍼治를 增補하였는데, 그 방법은 지금까지 모든 臨床諸家들이 남긴 經驗方과 加減方을 參考하여 劃一的으로 單卷에 볼 수 있도록 臨床을 위주하였다.

### 1. 編譯 취지와 내용(目的)

- ① 韓方臨床에 있어 『方藥合編』의 比重이 대단하다. 그래서 여러가지 譯版本이 刊行된 바 있다. 허나 모두 簡潔하게 되어 있거나, 國譯으로 直譯만이 되어 그 本來의 文脈을 쉽게 體驗할 수 없으며, 活用に 많은 장애가 있는 실정이다. 까닭에 諸家들의 多用面을 補充하고, 충분한 註解를 달아, 결여된 부분을 보완하여 廣濟養生에 一片 試金石이 되도록 하였다.
- ② 本書는 原文의 文意를 그대로 解說하기 위해 意譯하는 방식으로 하였다. 그러나 處方に 增補와 註解를 하여 原意를 소상히 밝혔다. 때로 原文에서 뜻이 깊고 難解한 부분은 될 수 있는대로 拙譯을 피하고 그대로 原文의 音字를 붙여 읽도록 하여 후에 明賢之士가 더 研究토록 하였다.
- ③ 本書를 編譯하는데 原本을 비롯하여 各種 版本의 『方藥合編』을 넓게 모아서 比較參考하였다. 이 과정에서 原典中の 誤植, 出典 誤記 등을 修訂하였다. 解說상의 참고문헌은 別記와 같으나, 그중에서도 『漢醫學辭典』 『臟腑辨證論治』 『天真處方解說』 『醫方集解』 등을 많이 應用하였다.
- ④ 原典中 ‘辨證方藥指針’(活套鍼線)은 그 重要性이 크지만 初心者가 活用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하고, 대신 病名·症候·目標別로 가나다順에 의해 정리하여 『隨證治療編』을 別卷 發刊하기로 하였다. 그 까닭은 『隨證治療編』이 워낙 방대한 이유도 있지만, 辭典類의 形式을 빌려 多種의 病名症候를 망라하고자 한 의도가 있으며, 또 別冊의 長點을 살려 서로 參考하며 자유자재로 여러 부분을 응용할 수 있게 하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따라서 『隨證治療編』에서 辨證을 하여 『處方解說編』에서 選方토록 하는 證·方 雙翼을 試圖하였다.

이 책은 臨床醫家나 新進研究家에게 一助의 역할을 충분히 할 것으로 자부한다. 그러나 深奧老大的 內容을 上梓하기에는 淺學菲才하고 薄考短歷하여 玉條의 逸失이 없지 않으며, 誤謬가 또한 없지 않음을 自認하는 바이다. 까닭에 敢히 『方藥合編』 解說을 試圖하러 한 編譯者를 용서하시고, 瑕疵에 대해서 거침없는 叱正을 주시기 바란다.

끝으로 이 책을 엮을 수 있도록 貴重한 資料와 意深妙理를 기꺼이 주신 申埃鎬 先生님께 감사하며, 原稿整理와 校正에 一翼을 달아 이 책이 보다 作明成瞭하게 도와 주신 金種業·申天浩·申定湜·申相習·權次男先生님께도 감사드린다.

아울러 精神의 支柱로 恒存해 주신 저의 선생님께 애정과 감사를 올리고, 題字를 써주신 常山 申載錫 親兄께 무한한 애정을 바치며, 『醫方活套原序』와 『方藥合編源因』을 翻譯해 주신 慶熙大學校 韓醫科 大學 朴贊國教授와 이 책이 세상에 빛을 보게 되도록 4餘年間 資料를 수집 해주시고 編輯에 힘을 기울이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밀어주신 成輔社 襄秉哲 社長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만 序에 代하는 바이다.

1988年 三一節夜 申 載 鏞 謹識

## 凡 例

### 1. 處方과 排列

① 本書는 處方名→出典→處方→方名由來와 異名·概說→治療→服用法 或 製法→活套→加減法→鍼灸→解說→注 或 參考의 排列로 體系를 세워서 臨床活用과 原理 특히에 注意를 기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도 있다.

② 處方の 排列은 上·中·下統式으로 連續하는 그대로의 眞意를 지켰으며, 이어 '辨證增補方'을 順序대로 記載하고, 그 뒤에 '新增補方'을 活套鍼線의 排列에 따라 外感諸病→內傷→雜病→外形→婦人→小兒의 順으로 記載하였다.

③ 處方名은 原典에 따랐으며 '新增補方'에는 編著者 임의로 命名 記載한 것도 있다. 類用方은 方名 앞에 ※※ 등으로 표시했다.

④ 出典은 尙급적 文獻考察에 따라 原典의 誤記를 修訂 記載하는 것을 原則으로 하였다. 때로 出典이 記載되지 않은 處方은 未確認된 것이거나, 혹은 編著者가 평소에 愛用하던 處方들이다.

⑤ 處方은 原典에 따랐으며 보기 쉽고 活用하기 쉽게 特殊活字로 처리하였다. '新增補方'은 國內外 臨床大家들의 經驗方이나 愛用方, 或 國內外 最新 書籍에 실린 新創製方中 活用이 용이하고 臨床 가치 가 있다고 思料되는 處方들만 選定하였다.

⑥ 處方은 原方 467, 附方 103, 諸傷門 21·解毒門 20, 雜方門 14, 石隱補遺 19, 霍亂門(惠庵家傳經驗方) 9, 辨證增補方 855, 엄격한 選定基準에 의해 精選된 新增補方 340이며, 여기에 各處方加味方과 同名異方解說까지 합치면, 本書에 記載된 處方은 總 萬餘方에 이른다.

⑦ 藥物의 衡量에 對하여는 原則적으로 1錢을 3.75g으로 하되, 때로 4g을 1錢으로 換算하는 便法을 택했으며, 衡량 單位에 익숙치 못할까바 錢·分·厘도 併用하여 誤算이 없게 하였다. 때로 미터법으로 換算 併記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1斗 등 價用에 따른 경우도 있다. 詳細한 것은 〈換算早見表〉를 參考하기 바란다.

⑧ 方名由來나 異名·概說에서는 尙급적 方名의 意義를 밝힘으로써 자연스럽게 方效를 터득할 수 있게 하였으며, 韓方理論을 援用하여 辨證 능력을 함양토록 시도하였다.

⑨ 治療 항목은 原典의 文句를 풀이하는 것을 原則으로 하였으며, 各 處方の 主治를 한 눈에 쉽게 읽을 수 있게 배려하였다.

⑩ 服用法 或 製法 항목 중 製法이 중요하거나 혹 까다로운 것은 別項으로 설명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服用法 항목에 함께 記載하였다. 때로 服用上 方法이 여러 가지일 때는 ①②…로 細分하였다.

⑪ 活套는 原典 그대로 轉載하였다. 때로 原典에 服用法中 混載된 活套類 性格의 항목은 編著者 임의로 活套 항목에 記載하였다.

⑫ 加減法은 臨床大家의 經驗方을 위주로 하되, 基本方에 加減하여 新方이 된 경우는 반드시 新方의 方名을 고딕으로 표시했다. 新方의 方名은 諸醫書에서 共用되는 것만 채택했다.

◀例▶ 小建中湯……加減法 ① 本方에 黃芪를 加하면……方名은 [黃芪建中湯] ② 本方에 當歸를 加하면……方名은 [當歸建中湯]……⑤ 虛冷腹痛에는 [理中湯]을 合方한다. 方名은 [建理湯]

⑬ 針灸 항목은 큰 비중을 두지 않고 개략적인 것만을 記載하는 정도로 하였다. 미비한 점이 많으므로 전문서적을 참고하기 바란다.

⑭ 解説 항목은 쉽게 理解할 수 있도록 平易簡潔한 표현을 주로 하되, 먼저 概念을 略述하고 내용을 敷衍하였다. 韓方의 理論을 바탕으로 辨證, 方劑 構成上 特徵 등을 記述했으며, 때로 史籍解題, 醫史學의 內容 등도 略述했으며, 때로 病證 설명상 相當하는 洋方疾病類를 밝힌 경우도 있고, 때로 實驗·臨床結果를 洋醫學의 面에 接近 揭記한 경우도 있다. 그래서 最近 學說을 섭취한 부분도 약간은 있다. 그러나 當爲性 있는 것, 또는 解說이 不必要한 非重要點, 或 '新增補方'의 一部에는 解說을 생략하였다. 아울러 解說의 橫的 重複을 피하기 위해 '○○湯 參考'라 처리하였고, 그중에서도 의당 관계되는 항목은 번잡을 피하기 위해 이 참고표마저 생략한 경우도 있다.

⑮ 解説 항목 말미에 具體的·立體的 理解를 깊게 하기 위해 圖表를 곁들인 경우도 있다. 圖表는 주로 『最新後世處方學』을 參考하였다.

⑯ 注 或 參考 항목은 注解가 필요한 사항, 또는 解說上의 미비점 보완, 또는 同名異方이나 附方의 內容을 주로 밝혔다. 때로 割注로 처리한 경우도 있다.

## 2. 藥物 解説

① 方劑의 理解를 위해 藥物篇을 卷頭에 排列하는 것이 原則이지만, '方藥'의 뜻을 살려 處方 해설 뒤에 藥物 해설을 記載하였다.

② 本書의 藥性歌는 詩意를 살리기 위하고, 또 모두 暗記해야 하기 때문에 漢文原文을 그대로 밝히고, 간략히 번역한 후, 해설을 첨기했다. 藥物 解説은 原典에 구애되지 않고 『醫學入門』 등을 參考하여 간략하게 記載하였다.

③ 本書에 收錄된 藥物은 『損益本草』의 515種을 다루었다. 收錄順序는 原典과 같이 山草→芳草→隰草→毒草→蔓草→水草→石草→苔草→香木→喬木→灌木→寓木→苞木→董辛菜→柔滑菜→瓜菜→芝栢→五果→山果→夷果→瓜果→水果→麻麥稻→稷粟→菽豆→造醜→卵蟲→化蟲→龍→蛇→魚→無鱗魚→龜鼈→蚌蛤→水禽→原禽→林禽→畜→獸→鼠→人→水→土→金石으로 하였다.

④ 藥物篇에 큰 비중을 두지 않았으므로 전문서적을 參考하기 바란다.

## 3. 用語·記號와 索引

① 用語는 漢字로 쓰되, 일부는 略字化 추세에 따라 正字와 混用하였으며, 특수한 用語에는 ( )속에 한글로 처리하였다.

◀例▶ 寢吃(진출)

② 英語用語는 우리말로 表記하였으며, 表記는 慣用에 따랐다. 年代는 西曆기원에 따랐으며, 필요에 따라 王朝年號를 쓴 경우는 年代를 ( )속에 보충하였다.

③ 使用된 各種 記號와 기타 약속 중 중요한 것은 아래와 같다.

- 긴 문구를 줄일 때, 또는 긴 문구의 나열, 대등하지 않은 개념을 나열할 때.
- (중간표) 대등한 개념을 나열할 때 썼으며, 특히 藥物 또는 病症을 나열할 때

◀例▶ 人參·朮白·白茯苓·甘草

· 동격, 또는 다음 설명 문구 개념을 미리 표기할 때, 또는 내용 중 參考處方構成을 표현할 때

／ 중요 症候의 강조, 보충 설명

◀例▶ 腰痠／四肢困倦／關節疼痛／頸項痠痛

‘ ’ 중요 症候名, 강조할 用語, 引用 原文

◀例▶ ① ‘濕’은 ‘外濕證’을 말한다. ‘外濕證’은 濕氣가……

② ‘清濁’는 ‘清水’를, ‘滋坎’은 ‘滋水’를 의미한다.

— 중요 證의 症候解說, 혹은 동격의 連系

◀例▶ ① 肺—大腸—鼻—皮膚—汗孔—毛髮—肛門

② 肅降—측 清肅下降을……

◀ ▶ 參考 또는 注

[ ] 處方名, 活套, 針灸

『』 文獻名

< > 引用文, 留意事項, 기타 주의를 요하는 語句

~ 自至의 뜻을 갖는 연결 부호, 藥物分量의 표시

◀例▶ 4~6g

※ 活用頻도가 높은 處方. ※의 數가 많을수록 頻도가 높다.

◀例▶ ※十全大補湯 ※ 星香正氣散

④ 索引은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卷末에 記載하였다.

• 損益本草索引은 가나다順으로 하되 한글→原名 漢字→異名을 밝혔으며, 한글→異名漢字→原名漢字를 밝히기까지 하였다. 藥물의 우리 말 이름도 索引에 포함하였다.

◀例▶ 우자(芋子=土芋)……page

토우(土芋=芋子)……page

(토란 土卵=芋子=土芋)……page

• 處方索引은 가나다順으로 하되 한글→原名漢字→〈出處·方門 同番號〉를 밝혔다. 同番號가 몇 개 적힌 것은 同名異方임을 표현한 것이다. 出處의 [上統]·[中統]·[下統]은 『醫方活套』의 上·中·下統을 말하며, [證補]는 辨證增補方을, 石隱補은 石隱補遺方을, [新補]은 新增補方을 가리킨다.

◀例▶ ① 加味桔梗湯 가미길경탕 〈增補方 97, 319〉

② 柴平湯 시평탕 〈下統 22·中統 77〉

#### 4. 隨證治療編

① 原典中 큰 비중을 차지하는 ‘辨證方藥指針’(活套鍼線)의 의의를 살려, 別卷에 病名·症候·目標別로 가나다順에 의해 정리하여 『隨證治療編』을 發刊한다.

② 『處方解說編』에 記載된 單語에 局限하지 않고, 辭典類 形式을 빌려, 韓方·洋方의 多種 醫學用語中 臨床에서 흔히 接할 수 있는 疾病만 嚴選하여, 그 病名·症候를 가나다順으로 排列하고, 그에 알맞는 處方을 提示하였다.

③ 특히 目標證名을 밝힌 것은 症候에 따라 處方을 고를 경우, 다른 症候와의 結合에 따라 處方도 다르게 되기 때문에, 그 目標를 단적으로 찾아볼 수 있도록 配慮한 것이다. 단, 目標證名은 重要 病證에 단 局限시켰다.

④ 病名·症候의 排列上 어떤 것은 어느 病名·症候의 異名도 있고, 또는 어느 項目을 參考하면 충분히 治療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 그런 경우는 說明과 處方 提示를 생략하였다.

⑤ 配列은 病名·症候→方名—〈出處〉의 順, 또는 目標證名→症候→方名→〈出處〉의 順으로 밝혔다. 方名과 〈出處〉는 『處方解說編』의 方名이며, 上·中·下統, 增補方, 石隱補, 新增方 등의 표기는 處方索引에서와 같다. 자세한 것은 別紙를 參考하기 바란다. 別紙는 『隨證治療編』 '가'項의 一部를 보기를 든 것이다.

무게 換算早見表

척 관 법 尺 貫 法	1毛(모)	1厘(리)	1分(분)	錢 1錢(忽屯)	1兩(량)	1斤(근)	1貫
미 터 法	0.00375 g	0.0375 g	0.375 g	3.75 g	37.5 g	600 g	3750 g

單 位	(그 램) g	(킬로그램) kg	(톤) t	錢(전)	斤(근)	貫(관)
1 g	1	0.001	0.000001	0.26666	0.00166	0.000266
1 kg	1000	1	0.001	266.666	1.6666	0.26666
1 t	1000000	1000	1	266666	1666.6	266.666
(忽) 1錢(전)	3.75	0.00375	0.000004	1	0.00625	0.001
(斤) 1근	600	0.6	0.0006	160	1	0.16
(貫) 1관	3750	3.75	0.00375	1000	6.25	1



『한民族文化의意識構造는그民族歷史속에서  
原形象徴의始作이있고한民族醫學史속에는그  
象徴的인原始鼻組像이있으니,우리韓醫學에는  
때늦게나마三國遺事의史蹟을浮刻시켜우리民  
族醫藥의原形鼻組像을볼수있게創案圖現하였  
다.』



韓醫學博士 崔光守 畫伯作

## 目次

活套針線(症狀索引).....	2
上統.....	21
中統.....	95
下統.....	207
增補方.....	281
新增補.....	423
諸傷門·解毒門·雜方門·石隱補遺	
製造門·飲食禁忌.....	501
藥性歌.....	531
處方索引.....	617
藥名索引.....	645

가

가래뿔

鼠蹊淋巴腺炎症性腫脹이다. <편독(便毒)>項을 참고.

가산(痲疔)

일명 산가(疔瘻)이다. <疔證·痲證> 등을 참고. 痲疔은 腹中積塊, 熱痛한다. 또 白濁이 나온다.

倉辛散 [中統] 133

加味橘核丸 [瓊補] 163-加 5

가속도병(加速度病)

加速度가 迷路를 자극함으로써 생기는 것으로 暈멀미, 기차멀미, 항공병 등의 동요에 의한 병적 상태다. <차훈(車暈)>項을 참고.

가스중독(中毒)

<일산화탄소중독(一酸化炭素中毒)>項 참고.

가슴앓이

胃液分泌異常에 의해서 느껴지는 불쾌감이다. <조잡(嘈雜)>項 참고.

가자질(茄子疾)

陰挺과 같다. <탈음(脫陰)>項 참고.

가취(痲聚)

任脈 受病의 증후로 臍下硬塊가 이동하며 痛處도 일정하지 않다. <疔·痲>項 참고.

和血通經散 [瓊補] 810

見晚丸 [瓊補] 811

膈下逐瘀湯 [新編] 71

가통(嫁痛)

첫 性交로 出血 或疼痛하는 것. 交接出血 등을 참고.

四物湯 [上統] 68

加 香附子·紅花 (新編) 卷合 15

或加 知母·黃柏·牛膝 (新編) 卷合 15

가흠(呵欠)

中風 後遺로 呵欠, 嘔嚏, 言語不利, 手足無力한 경우.

加味四物湯 [瓊補] 366

加減地黃湯 [瓊補] 367

生血起廢湯 [瓊補] 368

至仁煎 [瓊補] 369

각기(脚氣)

① 浮腫重墜: 腿脚이 浮腫하고 兩足이 무거워 축 늘어진 경우.

消跗湯 [瓊補] 774

② 裏熱腫痛: 濕熱로 腿脚이 붓고 아픈 경우.

清熱瀉濕湯 [下統] 134

③ 惡寒惡熱: 風濕으로 腫痛, 拘攣하면서 惡寒, 惡熱을 수반한 경우.

檳蘇散 [下統] 135

④ 風濕腫痛: ③과 같되 惡寒, 惡熱이 없는 경우.

大羌活湯 [下統] 6

疏風活血湯 [中統] 5

獨活寄生湯 [上統] 88

⑤ 畏寒拘攣: 寒濕에 의한 脚氣로 畏寒 拘攣하는 경우.

小續命湯 [中統] 1

四蒸木瓜丸 [中統] 151

五積散 [中統] 13

⑥ 小便不利: 濕滯로 인한 小便不利를 수반한 경우

胃苓湯 [下統] 86

五苓散 [下統] 10

⑦ 四氣流注: 肝, 腎, 脾 三經의 氣가 부족하여 風, 寒, 濕, 熱의 四氣가 下肢로 流注相搏하면서 浮腫, 痲痺, 嘔吐하는 경우.

四蒸木瓜丸 [中統] 151

⑧ 氣逆衝上入腹: 脚氣가 氣逆上衝하여 入腹하면 급한 喘息을 일으킨다.

木萸湯 [中統] 150

紫蘇飲 [中統] 160

四磨湯 [下統] 104

⑨ 氣逆衝上入心: 脚氣가 逆上衝하여 入心하면 황홀, 헛소리(譫語), 구토하며 먹지 못한다.

三和散 [中統] 88

⑩ 氣逆衝上入肺: 脚氣가 氣逆衝上하여 入肺하면 咳嗽, 喘急한다.

小青龍湯 [中統] 27-加 6

腎氣湯 [上統] 40

⑪ 氣逆衝上入腎: 脚氣가 氣逆上衝하여 入腎하면 腰, 腿脚에 浮腫이 생기고, 喘急, 眼臉及 額部黑色 등이 나타난다.

八味元 [上統] 40-加 40

⑫ 乾脚氣: 不腫으로 腿脚神經炎의 表現이 주되어 趾趾 兩脛이 마르고 痠痛한다.

四物湯 加牛膝·木瓜 [上統] 68

六味地黃元 加五加皮牛膝·木瓜

[上統] 40

健骨除濕湯 [瓊補] 562 p. 378

⑬ 濕滯脚氣: 水腫, 漿液滲出 등을 주로 하는 濕性의 脚氣인 경우.

清熱瀉濕湯 [下統] 134-加 2 p. 264

五苓散 [下統] 10

胃苓湯 [下統] 86



- ⑭ 酒濕脚氣
  - 大羌活湯 [下統] 6
  - 疎風活血湯 [中統] 5
  - 檳蘇散 [下統] 135
  - 獨活寄牛湯 [上統] 88
- ⑮ 寒濕脚氣
  - 五積散 [中統] 13
  - 小續命湯 [中統] 1
- ⑯ 血熱脚氣
  - 四物湯 [上統] 68
- ⑰ 痰滯脚氣
  - 五積散 [中統] 13
  - 控涎丹 [下統] 72—加 ①
- ⑱ 風滯脚氣
  - 烏藥順氣散 [中統] 10—加 ④
- ⑲ 通治
  - 烏藥順氣散 [中統] 10—加 ④
  - 五苓散 [下統] 10—加 ②
  - 五積散 [中統] 13—加 ⑮, ㉞
  - 不換金正氣散 [中統] 15—加 ㉞
  - 人參敗毒散 [中統] 19—加 ⑫
  - 香蘇散 [中統] 17—加 ④
  - 千金續命湯 [增補] 413
  - 九味檳榔湯 [新增] 204

각막궤양(角膜潰瘍)

角膜에潰瘍이 형성되는 것은 角膜폴리그덴, 정차 화농성으로 되는 것(神經麻痺性角膜炎·兎眼性角膜·角膜軟化), 또는 처음부터 화농성 궤양이 생기는 것(匏行性潰瘍) 등이 있다.

- 大青龍湯 [增補] 37
- 五苓散 [下統] 10
- 苓桂朮甘湯 (方外)
- 八味元 [上統] 40
- 小建中湯 [上統] 45

각막염(角膜炎)

① 實質性으로 角膜의 混濁, 光澤消失, 眼痛, 羞明, 流淚, 眼瞼痙攣이 있을 때.

- 洗肝明目湯
- 越婢加朮湯
- 清上防風湯
- 梔子蘆皮禮

② 化膿으로 이행하여 潰瘍을 형성했을 때.

- 十味敗毒散 加建越
- 葛根湯 加川芎·大黃
- 荊防敗毒散
- 黃連解毒湯

③ 表層性이며 浸潤이 수반되는 角膜판누스(pannus)로 炎症性混濁이 있을 때

- 苓桂朮甘湯
- 葛根湯 加黃芩·黃連

滋陰降火湯

知柏地黃湯 [上統] 40

① 기타 자세한 것은 <수명(羞明)>, <유루(流淚)> <안적(眼赤)> 등의 항목을 참고.

각면종(脚面腫)

下焦虛寒하여 脚腿, 面部, 陰囊이 浮腫하고 小便不利, 喘急한 경우.

牡原湯 [上統] 55—活 ②

각슬무력(脚膝無力)

① 心腎虛損하여 虛熱이 있고 脚痿無力하며 盜汗, 耳鳴 등 허증이 심할 때.

古庵心腎丸 [上統] 36

② 腎虛腰痛을 겸비한 脚膝無力 때.

青娥丸 [上統] 87—加 ②

③ 脚膝無力倦怠하며 嗜臥할 경우.

人參益氣湯 [增補] 391

④ 기타는 痿證, 四肢無力 등의 항목을 참고하며, 증상에 따라 다음 처방을 활용할 수 있다.

木香保命丹 [下統] 5

五癩湯 [增補] 767

清胃生髓湯 [增補] 768

調脾湯 [增補] 769

伐朮湯 [增補] 770

起痿降火湯 [增補] 771

數餘湯 [增補] 772

滋潤湯 [增補] 773

虎潛丸 [增補] 808

補中益氣湯 [上統] 22

八味丸 [上統] 40

獨活湯 [增補] 759

滋腎丸 加熟地黃·杜仲·牡蠣 [下統] 80

充髓湯 [增補] 517

鹿茸大補湯 [上統] 30

十全大補湯 [上統] 33

각슬창(脚膝瘡)

腎藏의 風이 攻注하여 脚膝에 瘡이 생기고, 或痒, 或麻하는 경우

胡麻散 [增補] 161

각슬통(脚膝痛)

① 血熱性 脚膝痛

四物湯 [上統] 68—活 ③, 加 IV—②

② 胎中, 産後, 流産後 脚膝痛

加味補血湯 [上統] 68—加 V—①

③ 風濕痰, 瘀血性 脚膝紅腫 疼痛

疎風活血湯 [中統] 5—活 ②, 加 ②

④ 酒食傷性 脚膝冷痛

對金飲子 [下統] 28—加 ⑫

⑤ 虛損性 脚膝痛

斑龍固本丹 [增補] 14

⑥ 虛冷性 脚膝冷痛, 痿弱



## 症狀別 病名別 索引

### (7)

각기부종(脚氣浮腫) .....	409	진망(健忘) .....	60, 492
각기입복천민(脚氣入腹喘悶) .....	184	진비양위(健脾養胃) .....	32
각슬편고(脚膝偏枯) .....	78, 283	진비진식(健脾進食) .....	37
각슬등통(脚膝疼痛) .....	496, 498	진해(乾咳) .....	172, 329, 339, 429, 433
간기울결흉협창통(肝氣鬱結胸脇脹痛) .....	287, 436	견비통마비(肩臂痛麻痺) .....	420, 497
간달(肝疸) .....	393	견응(肩凝) .....	470
간로(肝勞) .....	418	결음변혈(結陰便血) .....	237
간비노을(肝脾怒鬱) .....	82	결흉(結胸) .....	176
간신탄(肝腎瘵) .....	79	결핵(結核) .....	271, 508
간신탄약(肝腎虛弱) .....	78	경광(驚狂) .....	234
간실증(肝實症) .....	254	경련증(痙攣症) .....	307, 334, 335, 425, 427, 440, 471
간암(肝癌) .....	451, 454	경부임파선염(頸部淋巴腺炎) .....	482
간염(肝炎) 급성 .....	456	경부조(經不調) .....	83
간열비열안질(肝熱脾熱眼疾) .....	255	경열번조(驚熱煩躁) .....	196
간열승폐(肝熱乘肺) .....	120	경전후(經前後) 복통·요통·下血 .....	31, 483
간옹(肝癰) .....	411	경지혈소(經遲血少) .....	483
간울(肝鬱) .....	306	경폐(經閉) .....	273, 274, 319, 320, 321, 377, 414, 483, 484
간음허(肝陰虛) 간신탄음허(肝腎陰虛) .....	434	경풍(驚風) .....	202, 424
간질(癲疾) .....	234, 235, 351, 384, 386	경풍조축신열혼수(驚風潮搐身熱昏睡) .....	199
간허정등냉루(肝虛睛疼冷淚) .....	257	경항결핵(頸項結核) .....	271
감모(感冒) .....	102	경행시복통(經行時腹痛) .....	382
감모서풍(感冒暑風) .....	123	경혈부조(經血不調) .....	85, 412, 413
감상풍한(感傷風寒) .....	105, 118	경후복통(經後腹痛) .....	384
감증(疔症) .....	195, 344, 347, 490	고냉(股冷) .....	53
감풍한(感風寒) .....	116, 150	고냉(痛冷) .....	302, 303
감풍한비색실음(感風寒鼻塞失音) .....	130	고창증(鼓脹症) .....	419, 449
감풍한해수(感風寒咳嗽) .....	118, 130	곡달(穀疸) .....	393
갑상선종대(甲狀腺腫大) .....	497	곡창기창(穀脹氣脹) .....	230
개선(疥癬) .....	476	곤권무력(困倦無力) .....	247
개흉쾌격(開胸快膈) .....	37	골반염(骨盤炎) .....	498
객담(咯痰) .....	69, 118, 153, 303, 466	골저(骨疽) .....	285
객오(客忤) .....	272	골절상(骨折傷) .....	498
객혈(咯血) .....	235, 435	골절통(骨節痛) .....	102
거육생신(去肉生新) .....	287	골조풍(骨槽風) .....	260
건구(乾嘔) .....	119	골증(骨蒸) .....	126
건구수족마냉(乾嘔手足麻冷) .....	129	교접시출혈(交接時出血) .....	322, 396
		과도방사(過度房事) .....	381~383
		괴증(怪症) .....	234, 238, 364